

<저자소개>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권은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인종 간 결혼을 주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미로의 아시아인 이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다룬 다수의 학술 논문을 국내 저명 학술지에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IX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조 규 태
한성대학교

머리말

천도교의 3세 교주 손병희(1861~1922)는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려고 한 근대화운동가였다. 인간 존중의 개벽된 사회를 건설하려고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서구적 문명개화운동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01년 일본에 가서 문명개화파 인사 및 일본의 정계 인물과 교류하고 신문과 서적을 읽음으로써 문명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이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여, 1905년 유·불·선의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학(東學)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사상과 문화가 접목된 천도교로 변경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3세 교주로서 전통적인 동학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문명론·사회진화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 서구사상을 천도교와

천도교인에 확산하였다. <천도교대헌>에 따른 의회와 총인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우리 민족의 자유국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결에 의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제국이 부강한 자유국과 문명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건한 의지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려 하였고, 3·1운동 후에는 자율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조화와 협동을 실천하는 신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또 그는 이러한 근대적 국민과 신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 등의 부문운동과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후원하였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기여한 손병희의 역할이 지대하였기에 지금까지 손병희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¹⁾ 그리하여 손병희의 동학농민운동, 갑진개화운동, 3·1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미친 손병희의 역할 등이 자세히 밝혀졌다. 또 그의 문명론과 철학사상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손병희의 근대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과 확산이란 점에서 검토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민족주의사상과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으나 정치사회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한 까닭이다. 더욱이 동학의 사상이 인내천·동귀일체 등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고, 해방 후 천도교가 남한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고,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을 통해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참여하였기에 손병희의 정치사회관을 선뜻 자유민주주의사상과 연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첫째 손병희가 서구의 근대화사상을 수용한 계기와 경로 및 그가 수용한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둘째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수용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시하고 천도교 내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갔는지 알아보겠다. 셋째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을 위해, 손병희가 어떠한 목표를 두었고, 어떠한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겠다.

일본 외유와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

동학농민운동 당시 손병희는 서구의 근대적 사상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학(西學)'에 대한 타자로서 탄생한 인간 존중의 동학에 1882년 입교하여 중요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차별의 철폐와 신분의 평등, 청춘과부의 재가 등을 이루기 위해 중군(中軍) 통령(統領)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그가 서구의 정치사회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학습한 것은 아니었다.

손병희가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경험한 것은 동학농민운동 후 서북지역에서 포교를 전개한 1895년 이후였다. 그는 평안북도 압록강 방면의 강계·후창·위원·자성 등지와 함경북도 두만강의 청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며 포교를 하였다. 그 결과 성천·안주·강동 등지의 평남과 태천·정주·구성 등지 평북에 동학 신자가 크게 늘어났다.²⁾

이 시기 평안도에는 평남의 평양(1893년), 평북의 의주(1887년)와 선천(1897년) 등지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설치되고 교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³⁾ 따라서 그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혹은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구의 사상과 지식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독립신문』(1896년)과 『황성신문』(1898년) 등이 발간되었으므로 지면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1898년 6월 최시형이 서울에서 사형을 당한 직후, 그는 동학교단의 수습책으로 “시의를 따라 세계의 문명제국과 같이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김연국과 손천민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⁴⁾ 1900년 7월 무렵 서북지역 교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교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손천민이 사망하고, 김연국이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1901년 3월 박인호·이중훈·홍병기·이용구 등에게 문명국 탐방 문제를 말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간 후, 나가사키를 거쳐 오사카에 가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비가 부족하여 그곳에 머물렀다.⁵⁾ 그런데 그는 왜 굳이 문명제국 중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였을까? 평안도 등 서북지방에 포교하면서 선교사와 한인 기독교인으로부터 미국의 발전상을 들었고, 이에 그는 문명국 중 특별히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였던 것 같다.

이상헌·이규완·손시병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부유한 국제무역상으로 행세하던 손병희는 전(前) 군부대신 조희연과 그의 부하 천응성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가지 말고 일본에서 활동하라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⁶⁾ 그는 조희연의 소개로 권동진·오세창·이진호·박영효 등과도 교류하면서 동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였다.⁷⁾

손병희는 1901년 10월 경 귀국하여 박인호로 하여금 문명개화운동 추진의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평안도 등지에서 청년 자제 24명을 선발하여 19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1902년 3월 손병희는 나라현에서 김현구·이진홍·유기영·이인숙·황석교·최희준·이관구·정광조·김창수·오상준 등에게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같은 해 6월 교토로 옮겨 이들을 교토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시켰다.⁸⁾

이후 손병희는 오사카, 고베, 교토, 도쿄 등지에 머무르며⁹⁾, 조선의 문명개화파 인사,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와 군인들을 만나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전 군부대신 조희연(趙熙演)과 권동진·오세창·박영효·양한묵 등과 교류하며 일본을 시찰하고 서구와 동북아의 상황과 국제질서, 서구의 사회와 사상 등에 대하여 학습하였다.¹⁰⁾ 박영효가 1888년 고종에게 올렸던 「건백서(建白書)」의 내용을 읽거나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의 세계의 형세, 법률의 부흥을 통한 나라의 안정, 경제를 통한 나라와 백성의 윤택, 백성을 보살피 건강하고 번성하게 함,

군비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킴, 백성에게 재주와 덕행과 문화와 기예를 가르침, 정치를 바로잡아 나라를 평정함, 백성에게 합당한 자유를 주어 원기를 배양함 등에 관한 견해¹¹⁾ 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일본에 머무르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문명론에 대한 글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1875년 발간한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이 탐독되었고, 에머슨(Emerson)의 문명론이 1890년 사토 시게노리(佐藤重紀)에 의하여 번역되기도 하였다.¹²⁾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 혹은 문화발전의 단계를 야만-반개-문명의 세 단계로 나누고, 문명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반개는 야만에 비해서는 문명이고, 구미의 문명도 야만과 미개 사회에 비하여 앞선 것이지 지선(至善에유)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문명에 선진과 후진이 있으면 앞선 자는 뒤진 자를 지배하고 뒤진 자는 앞선 자에게 지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비문명국이 문명국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내의 문명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서구의 문명을 모방·수용하여 문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지혜와 덕의를 발전시켜 일신의 자유를 이루고 일국의 자유를 이루고자 하였다.¹³⁾

이러한 문명론 등 서구의 근대사상을 수용한 손병희는 1903년 「삼전론(三戰論)」을 발표하여 개화의 시기에 종교전쟁인인 도전(道戰), 경제전쟁인 재전(財戰), 외교전쟁인 언전(言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특히 그는 “천시(天時)는 땅의 이로우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화(人和)만 못하는데, 인화의 방해는 도(道)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⁴⁾ 또 같은 해 「명리전(明理辨)」을 발표하여 동양문명의 시대가 반복하여 지금은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 등을 바탕으로 한 서구문명이 발달하지만 몽매함에 빠져 인순고식하지 말고, 미래의 화복과 사후의 화복을 구하지 말고 현재의 천법(天法)에 응하여 인사(人事)를 다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⁵⁾

손병희가 수용한 서구의 근대사상은 1905년 4월 5일 지은 『준비시대』¹⁶⁾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 동포여 금에 아국을 何等國이라 謂할고 富國乎아 貧國乎아, 強國乎아 弱國乎아, 文明國乎아 蒙昧國乎아, 自由國乎아 壓制國乎아. 국 중의 토지가 비옥하며 물산이 풍요하여 可富之資가 有하되 何謂而貧乎며 國民의 기골이 웅건하며 意志堅確하여 可強之質이 有호되 何謂而弱乎며 國民의 품부가 충준하며 재지가 우수하여 가히 文明之道 有하되 何謂而蒙昧乎며, 國民의 器宇가 관대하며 重義하고 尙德하여 가히 自由之風이 유하되 何謂而壓制乎아.¹⁷⁾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염원하였다. 즉,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골이 웅건하고 의지가 굳세고 강하며, 재주와 지식이 우수하고, 그것이 관대하고 중후하고 정의롭고 덕을 숭상하는 자유지풍이 있으면, 사회진화론적 생존 경쟁의 시대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손병희는 과거에 우리는 진취적인 기상과 탄탄한 부를 누리던 자유로운 문명국이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삼국시대에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대적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군사와 병비를 갖추지 못하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아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을 없애버리고, 소박함을 순박한 풍속이라 하여 좁고 쓸모없는 모양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또한 실 짜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목축은 기술을 모르며, 바다의 무진장한 고기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탓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의 행함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제위(권리)

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천하의 공론으로서 이를 제지하였다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¹⁸⁾

또한 손병희는 강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법권을 회복하고, 둘째 철도를 보상하여 구매하고, 셋째 광산을 찾고, 넷째 관세를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외의 신민들이 삶을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철도의 권리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양잠·식목·목축·양어 등의 면별 사업을 진행하고, 군별로 농업과 상업과 공업을 운영하여 3~4할을 저축하고, 관리 중 월급 20원 이상인 사람은 1할, 50원 이상인 사람은 2할, 100원 이상인 사람은 3할을 털어 저축하게 하고, 재산가의 무역과 제조로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고용원 등으로 일하면서 철도 운행의 기술을 익혀두자고 하였다. 또한 광산은 우리의 것이니 권리를 돌려받고, 관세는 우리의 것이니 돌려받자고 하였다.¹⁹⁾

그리고 부강하고 자유로운 문명국을 만들기 위해 동심동력의 단체를 만들고, 이를 향자치(嚮自治)부터 실천하자고 하였다. 그는 향자치의 방안으로 면별로 시행하며 향장·부장·수세원·서기 등의 공민(公民)이 지적, 호적, 민업, 도로, 수세, 소학교 유지, 위생, 정병, 재산관리, 공동묘지, 일제 공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²⁰⁾

손병희는 정치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준비시대』에서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夫(대저) 국가라는 것은 一人의 사유한 바 아니오. 내 萬民의 所共한 者인 고로 國家之事는 즉 國民自家의 사이거늘 乃何로(어찌하여) 일부 정부지인에게만 위탁하고 傍坐視之하다가 事之不學에 至하여 乃 起而 策之하되 是는 爾之罪也라 하리오. 정부라는 것은 天子命之하사 治民之事를 任함이니 其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아니면 감히 關知할 바 아니라. 后는 依民이요, 民은 戴后일새 국가의 建官과 設職은 爲民함이라. 고로 后가 官으로써 人에게 命하며, 職으로써 人에게 授함새 기인의 현능이라야 任使之하사 曰 爾는 惟 朕德을 宣하며 爾는 惟 朕憂를 分하라 하심이니. 乃 其 付畀의 重함을 負하고 黨惡코 比私하여 聰明하심을 壅蔽하면 萬民을 賊害하면 是는 국가의 罪인이라. 國民이 천하의 公論으로 其 죄를 宜乎鳴而攻之하여서 君主지폐에 達토록 하여 誅斥하심과 免黜之하심을 乞함이 가하니.²¹⁾

즉, 위와 같이 손병희는 국가는 일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만민이 공유한 것이므로 국가의 일은 국민 각자 집안의 일이라고 하였다. 관리의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관여해야 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국민에 의존하고 국민은 제후를 받들고, 관리를 세우고 직위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왕-사(관리)-민의 체계에서 민은 피치자의 입장이었는데, 『준비시대』에서 일반 국민은 관리의 통치를 받는 처지가 아니라 관리를 평가하고 감시하여 상벌을 주고 출척하는 위상을 지녔다.

대한제국기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주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였다. 그는 국민이 국왕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추대로 국왕이 통치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그는 국민이 관리를 감시하여 그 잘못이 있으면 공론(公論)으로 공격하고, 그 상황을 국왕에게 알려 이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병희는 입헌군주제를 군민공치(君民共治)의 문명정체(文明政體)로 이해하였다.²²⁾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입헌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변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대 중반, 그는 우이동의 수련원에 가서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상태가 일변하여 세계에 임금이란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3·1운동 후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신은 민주정체를 원한다고 피력하였다.²³⁾

한편 손병희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손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주장하였다. 아래의 『준비시대』의 글에 따르면, 이는 자주(自主), 자위(自衛), 자진(自振)의 나라였다. 또한 손병희는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각 가정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吾人이 此國에 生하니 此國은 吾國이라. 오국이라 謂함은 他國을 對하여 言함이니. 吾身이 他人의 身을 對하며 吾家가 他人의 家를 對하여 有함과 同한지라. 人이 其身의 自由는 타의 구속을 받치 아니하고 其家의 自立은 타의 지휘를 용치 아니하니 國이 亦然하여 其 自主하는 권리는 타국의 간섭을 척하며 독립하는 실력은 타국의 침범을 排한 後후에 일국의 생활을 始可得保할진저. 개인의 분쟁은 법률의 재판을 청하여 其 曲直을 分하거니와 국제의 시비에 至하여는 干戈에 訴하여 승패로써 決한 고로 公법천언이 대포로 무에 及지 못하여 강력을 정의라 위하는지라. 國의 自衛하는 무비가 實치 못하며 自振하는 文教가 盛치 아니할진댄 其 謂한 바 自主는 허명뿐이오 독립이 外面일 따름이니. <하략>²⁴⁾

1919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자 손병희는 조선민족도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천도교의 창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형성

또한 그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세계가 하나의 단체가 되고 각 민족이 서로 친화하여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⁵⁾ 그가 천도교의 권동진·오세창·최린과 협의하여 기독교 및 불교와 연합하여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소신 때문이었다. 손병희는 국민에게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의 자유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저들은 공정한 성문법이 모두 존재해서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니 그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철벽으로 방어하는 것과 같다. 또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 활동과 관련한 것이 국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의 좋아하는 바를 마음껏 좇을 수 있어야 하늘의 높음과 땅의 트임에 도무지 장애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략>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니 압제란 곧 자유로운 자가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다.²⁶⁾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의 활동이 국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마음껏 좇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능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쟁취하라고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 후, 손병희는 민권(民權)을 행사하기 위한 민회운동(民會運動)을 전개하였다. 처음에 손병희는 대동회(大同會)·중립회(中立會)의 이름으로 개최하여 일본과 거리를 두었다가 동학도가 일본군에 의해 살상되거나 체포·구금되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결국 이용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음력 8월 30일 진보회(進步會)를 통한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²⁷⁾

진보회는 자유국의 보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과 국민 대의기관의 설치와 국제질서의 준수 등을 주장하였다. 개최 시 각군의 진보회는 문명개화의 징표로 단발을 하였다. 그리고 진보회에 참여한 동학인들은 통문에서 독립을 보전할 것,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정치개혁을 현의할 것, 재정을 정리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평안도 지방의 진보회에서는 국회의 설립, 포교의 자유, 각국 주교를 보호할 것, 만국공법에 따라 기를 세우는 것을 금할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⁸⁾

그런데 국내에서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가 1904년 말 진보회와 일진회를 합한 후 친일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의 철도 건설을 지원하고, 심지어 1905년 말 일진회의 명의로 일본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병이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던 동학인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²⁹⁾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이란 명칭을 천도교(天道敎)로 바꾸었다.³⁰⁾ 동학에서 천도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만은 아니었다. ‘학단(學團)’에서 ‘교단(敎團)’, 즉 ‘배우는 집단’에서 ‘가르치는 집단’으로 마음의 자세와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동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양의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손병희는 귀국 후인 1906년 2월 천도교의 헌법인 〈천도교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에 72교구를 설립하였다.³¹⁾ 중앙총부의 간부로 개화파 인물과 일본 유학생이 선임되었다. 1906년 2월 양한묵·오세창·권동진은 각기 현기사(玄機司) 진리과원, 이문관장, 전체관장 대리로 임명되었고, 1902년 일본에 유학한 김현구(金顯玖)와 조동원(趙東元)은 금융관 금고원과 서무관장(庶務觀長) 대리에 보임되었다.³²⁾

〈천도교대헌〉에 따르면, 손병희는 천도교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회(議會)’를 도입하였다. ‘의회’로는 사회(社會), 관회(觀會), 부회(部會), 총회(總會), 대교구회, 중교구회, 소교구회가 있었다. 사회는 중앙총부 현기사(玄機司)의 임원, 관회는 중앙총부 이문관(理文觀)·전제관(典制觀)·금융관(金融觀)·서용관(庶務觀) 각관의 임원, 부회는 총부임원이 참석하는 회의였다. 그리고 총회는 중앙총부 임원과 대교구장, 대교구회는 대교구 임원과 중교구장, 중교구회는 중교구 임원과 소교구장, 소교구회는 소교구 임원과 교인 대표가 참석하는 의회였다. 임원회의의 성격은 지냈고, 교헌의 제정, 예산과 결산 등 교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교주의 독단이 아니라 중앙총부 임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사회·관회·부회와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는 작은 소통과 공론의 장이었고, 대교구회·중교구회·소교구회는 교회 내 지방자치의 시험장이었다.³³⁾

1908~9년 천도교의 실질적 의회로서 총인원(總人員)을 설립하였다. 문명개화파인 현기사장 양한묵은 발의로 설립된 총인원은 중앙총부 내에서는 의사제안, 탄핵, 조사 등을, 중앙총부 밖에서는 순유(巡遊)와 교섭 등의 사무를 책임졌다. 총인원은 교무확장, 임원추천, 채관청상, 교당건축, 교육방침, 사회문명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양한묵의 말처럼

“교무의 추요(樞要)”였다. 중의(衆議)를 채용하는 총인원의 의사는 일반교인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공선(公選)되었다. 총인원은 매년 천일(天日, 4월 5일) 회계주(회계주) 독도일과 인일(人日, 12월 24일) 손병희 승통일에 정기사회를, 필요한 경우 임시 사회를 열었다. 의사가 공선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에 비해 총인원은 권위가 신장되고, 훨씬 더 민주적인 대의제도로 발전해 나갔다. 1914년 8월 천도교의 대교구가 36개로 정비되자 총인원의 의사원수는 35명으로 증가하였다.³⁴⁾

3·1운동 후인 1921년 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총인원은 의정회(議正會)와 총의원(議院)으로 발전하였다. 1921년 천도교의 정광조 집행부에 반대한 홍병기, 오지영 등은 의정회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60개 교구에서 의정원을 선출하였다. 1921년 12월 제1회 의정회에서는 〈천도교대헌〉 대신에 〈천도교종헌〉을 만들고 교주를 공선하고 종법원·총무원·총의원의 3원 체제를 마련하였다. 〈천도교종헌〉의 제1장 총제에서는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전체사로서 차를 호지함”이라고 하여 천도교의 주권이 일반 교인에게 있음을 천명하였고, 교회의 대표를 교주의 추천이 아닌 교인의 선거로 뽑고자 하였다.³⁵⁾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손병희는 박인호 등 교권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주제를 부활하고 종법원·총무원·총의원의 3원제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 말 69개 구역에서 선출된 종법사로 구성된 종법원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는 일반 교인이 아니라 원로가 각 교구의 대표로 선출되어 천도교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손병희 사망 다음 해인 1923년 천도교의 의회는 종법원에서 종리사총회로 바뀌어 교법과 신앙 중심의 체제에서 교정 중심의 체제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종리사·종법사·포덕사가 참여하는 법회(法會), 1940년에는 교구장·도훈·교훈 중심의 총회(總會)로 변모하였다. 해방 후인 1945년

10월 천도교의 의회는 <천도교 교약>의 반포에 따라 대회, 연원회, 교구회, 전교신회 등으로 정비되어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였다.³⁶⁾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

대한제국기 손병희는 문명국 수립의 기초가 근대적 국민의 형성에 있다고 믿었다. 부강한 자유의 문명국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상은 첫째 굳게 참고 견디면서 오래 유지하는 성품을 갖고, 둘째 강건하여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갖고, 셋째 넓은 마음과 관용의 도량을 갖추고, 넷째 분발하여 떨치고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힘쓰면서 실사구시하는 사람이었다.³⁷⁾

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국민의 덕목으로 보았다. 즉, “사람이 국가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우리의 생명은 국가에 있고, 우리의 재산도 국가에 속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라. 사람의 삶은 백살을 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고 국가의 명은 만억년으로 무량하다 생각되니, 혹여 사리분별을 잃은 행동으로 유구할 겨레에 영향을 끼쳐서야 옳겠는가?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젊어져야 할 커다란 짐이 있으며, 위대한 경영이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힘쓸지이다.”라고 하였다.³⁸⁾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하였다. 『준비시대』에서는 “이는 국민이 모두 선포하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란 불가능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즉 정부가 악정을 행하게 함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음이니 국가의 정세가 위급한 것이다. 한 국가에 속한 사람은

상하와 노소를 막론하고 과거의 악을 생각하지 말고 묵은 원한은 마음에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힘을 억누르고 마음을 함께하여 매우 굳센 힘과 거대한 원기를 합쳐야만 편안한 받침을 얻게 될 것이니 힘을 합치면 화목함이 생길 것이요, 화목하면 하나 됨을 이루나니, 하나 됨은 능히 흔들리지 않는 세력을 이루어 사람을 이기고 하늘을 이길 것이다. 이는 타오르는 불길의 기세와 같아서 자극하는 자는 반드시 불타 버릴 것이며, 반석의 견고함과 같아서 부딪치는 것은 끝내 깨지고야 말 것이다. 탄식하노라 내 동포여! 오늘날의 급한 일은 진실로 국민의 단결에 있도다.”라고 하였다.³⁹⁾

부강한 자유국 문명국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먼저 교인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1908년 6월 교리강습규칙을 제정하고, 다음달 교구의 성화실에 야간교리강습소를 설치하고, 1909년 9월 중앙총부에 법과를 신설하여 교리강습소를 관장하고, 1911년 6월 종학강습소가 설치되어 교리강습소의 강사를 양성하였다.⁴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12년 말 전국에는 평안도 404개소 등 700여 개소의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었다.⁴¹⁾ 교리강습소에서는 천도교의 종지는 유불선(儒佛仙) 합일이요, 종교의 효력은 국민정신을 함육(涵育)하여 문명세계에 진보하는 것이라 하고, 「교의 경력과 진리와 사회문명」이란 강연, 사회문명이 종교 확장에 재(在)하다」는 강연⁴²⁾ 등을 통하여 천도교인의 신앙과 수양과 정신교육을 중시하였다.

손병희는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문과 도서의 발간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6월 17일 창간된 『만세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전국 이천만 동포의 腦髓를 一朝에 劈開하고 文明한 新공기를 醍醐와 같이 灌注하여도 그 不足함을 유감됨으로 생각할 시대이라, 吾儕는 여차한 시대에 人민교육의 대표하는 의무로 巨款을 소비하여 新보사를 설립하였다.”⁴³⁾

위와 같이 손병희는 신 공기와 같은 문명적 기사를 제공하여 이천만 동포의 뇌수를 하루아침에 개벽하기 위해서 『만세보』를 창간케 하였던 것이다. 또한 『만세보』에서는 일본학자 아리가 나가오의 「국가학」, 시라기와 지로白神次郎와 고쿠보 슈도쿠國府種徳의 공저 「지나문명사」(1900)의 「정치에 관한 관념과 군주정체의 발전」 등을 연재하여 자유주의적 민주정체와 입헌정체 등을 소개하고, 인민주권의식과 인권보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⁴⁴⁾

손병희는 『준비시대』를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만세보』에 연재하고, 1906년 8월 보문관에서 『준비시대』를 발간하였다.⁴⁵⁾ 앞서 살폈듯이, 이 연재 기사와 책을 통하여 손병희는 부강한 자유국과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근대적 국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반인의 교육을 위해,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교구로 하여금 교육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천도교에서는 보성학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1910년 12월 무렵 보성전문학교·보성중학교·보성소학교를 인수하고, 이 외에도 서울의 동덕여학교·문창학교·보창학교, 대구의 일신여학교 등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주의 중학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서울의 양덕여자보통학교·오성학교, 대구의 교남학교, 청주의 청북학교 등도 경영하였다.⁴⁶⁾ 이러한 학교의 운영은 손병희의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교리강습소와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 등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청년교인과 일반인들은 3·1운동 당시 서울과 지방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9월 천도교에서는 교리강연부를 설립하고 다음 해에 천도교 청년회를 설립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손병희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⁴⁷⁾ 이 점에서 문화운동기에 신문화운동론자들이 지향한 신 인간의 모습은 손병희와 생각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운동기에 지향하는 신인간의 모습은 첫째 자기 해방과 개성을 지닌 ‘자유自由의 아’였다.⁴⁸⁾ 이돈화는 의식주와 재능과 의지의 자주자립을 주장하였고⁴⁹⁾, 한기악은 자기해방으로 자기개성을 강조하였고⁵⁰⁾, 박응룡은 개성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고 하였다.⁵¹⁾ 김홍선은 “자유 의 아’란 정신에 바탕을 둔 ‘정신적 자유의 아’를 의미한다.”⁵²⁾고 하여 의뢰적 정신이 아닌 자존적 정신을 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모습은 진취적·창조적 인간이었다.⁵³⁾ 박달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우주의 대자연까지를 자기의 심신心身에 삼킬 수 있는 대담한 인물, 즉 열정가”라고 하였다.⁵⁴⁾ 신언준은 전진불이前進不怠, 근면, 사회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활동적 청년이 되라고 하였다.⁵⁵⁾ 그리고 김기전은 러스킨의 “우리는 무엇을 가질지라도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으며, 또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조금 더 특별한 곳을 가보았으면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였다.⁵⁶⁾

그리고 셋째 모습은 조화와 협동과 공동의 정신이었다.⁵⁷⁾ 이돈화는 한울이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至正, 지공至公, 지인至仁, 지애至愛, 지자비至慈悲, 지성至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⁵⁸⁾ 박태준은 자유, 진취와 아울러 공동의 도덕을 강조하였다.⁵⁹⁾

손병희는 이러한 신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 등의 부문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강연과 교육과 출판 등을 통한 문화운동을 지지하였다.

맺음말


1894년 서구문명의 침략에 항거하여 유·불·선의 동양문명을 지키고자 반일적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1890년대 후반 평안도 등 서북지역에 포교하면서 문명론을 집착하였다. 그는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해보기 위해 1901년 조선을 떠나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그는 조희연·권동진·오세장·박영효 등의 문명개화파 인사를 만나 문화발전단계론과 사회진화론의 패러다임을 갖는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부강하고 신양·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허용되는 미국·영국과 같은 자유문명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기간에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 및 미국과 제휴한 일본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협의하여 진보회를 조직하고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였다.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변경한 손병희는 교육을 통해 자유·자강·애국·단결의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고, 의회와 총인원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사상을 확산하였다.

자유민주사상을 가진 손병희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3·1운동을 거교적·거족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3·1운동 후 민주공화제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잔혹한 무력 진압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3·1운동 후 손병희는 민족운동의 차선책으로 천도교청년회가 중심이 된 문화운동을 후원하였다. 이 문화운동은 정신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유·의지·조화와 협동의 정신을 가진 신인간을 형성하고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천도교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손병희의 자유민주주의사상은 1920년대 평안도인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 천도교의 신파는 문화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적 신인간을 양성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가진 김성수 등의 동아일보세력, 이승만 등의 감리교세력, 안창호 등의 장로교세력과 힘을 합쳐 일본으로부터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기회를 봐 독립을 이루려는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등 감리교세력과 안창호 등 장로교세력이 독립운동노선을 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족운동세력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한편 교내에서 천도교 신파는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천도교연합회와 대립하였고, 해방 후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협력한 사회주의적 천도교인과 달리 3·1재현운동을 통하여 김일성정권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규태, 「손병희의 근대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 『동학학보』62, 동학학회, 2022. 45~75쪽.

<저자소개>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규태는 서강대학교에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의 교수와,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이주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맨티카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1916~1925)」(2020), 「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천도교와 민족운동」(2020), 「1920년대 북경지역의 흥사단원과 민족운동」(2021), 「미주지역 한인의 적십자 조직과 민족운동」(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